

농수산물 이력제 유명무실...벌써부터 제수용품 걱정

안전 먹거리 말뿐...불안감 여전

절차 까다롭고 인센티브 없어 농어민들 참여 외면

정부가 국민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걸림돌이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수입 먹거리를 접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음에도, 정착 안전성을 담보할만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속에 제수용품을 준비해야 할 처지다.

◇'결만 번지르르' 이력제=정부는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이력제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이력제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도입된 지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생산자들에게 외면받으면서 허울뿐인 정책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산물 이력제의 경우 지난 2008년 도입됐음에도 전국 6만325개 참여 대상 중 고작 10.4%인 6278개 업체만 참여하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전남에서도 수산물 이력제에 참여하는 어민이나 업체는 전체 대상 2만1747개 중 1535개(7.05%)에 불과하다. 지역 대표 상품인 영광굴비만 보더라도 496개 굴비 업체 중 59곳만 이력제에 참여하고 있다.

수산물 이력제는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 수산물을 가려내고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국 어가 및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체

■ 전남 농수산물 이력제 현황

	대상 농어가	참여 농어가	참여율
농산물	16만 4000호	625호	0.38%
수산물	2만 1747호	1535호	7.05%

* 전일업 전국생산량 42만 419t 중 18만 5748t 참여(참여율 44.19%)

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산물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록·관리해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하게 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한 형편이다.

농림축산부의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제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전남지역 농가만 16만4000가구에 이르지만 참여하는 농가 수는 고작 625호(0.38%)에 불과하다. 식탁에 오르는 안전성을 담보할만한 정책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신안이 전국 생산량의 69%를 차지하는 전일업도 다르지 않다. 수입산 소금이 국산 전일업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전일업 생산 이력 관리제도 참여율이 낮아 '반쪽'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일업 생산 이력 관리제는 전일업 포장재에 정품 인증 라벨을 부착하는 사업

으로, 지난 2013년 생산된 전일업 42만 419t 중 라벨을 부착한 뒤 출고된 상품은 18만5748t(44.19%)에 불과하다. 그나마 20kg 들이 포대에만 사용하고 나머지 포대는 사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생산자들은 참여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없고 까다로운 등록 절차, 복잡한 시스템 등을 들어 참여를 꺼리는 데도, 정부는 적극적인 독려나 제도 보완·개선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식탁 불안 '연례 행사' 언제까지=정부 정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한 적발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영광굴비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짜뎡' 굴비 유통을 막기 위해 영광굴비특수사업단을 출범하고 '진품인증대'를 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중국산 굴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하다.

이력제에 대한 단속과 홍보도 미흡하다. 농림부는 이력제 홍보를 위해 만화책 13만 부를 만들어 학교 등에 배부하고 캠페인을 실시한 수준으로, 정작 해당 업체나 어민을 상대로한 홍보·권유는 미미하다. 농산물 이력제도 제도 활성화보다는 사후 관리에만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새해 소망·가훈 써주기 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일곡도서관 갤러리에서 열린 '서로 신년 다짐시키기' 행사에서 강사가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붓글씨로 새해 소망과 가훈 등을 써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진도 앞바다 어선 전복 1명 사망·2명 구조

출항신고 안해 해경도 몰라

진도 해역에서 낚지잡이 어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됐다. 출항신고 없이 바다로 나가면서 해양경비안전처는 어선 출항 사실조차 몰랐다.

8일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경 진도군 고군면 무저도 남쪽 3.7km 해상에서 진도선적 낚지잡이 어선 태승호(2.93t)가 전복됐다.

서해해경은 목포해경안전서로 걸려온 "침몰중"이라는 태승호 선장 하모(50)씨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기지국을 조화, 사고해역을 파악한 뒤 헬기 2대와 50t급 경비정과 순찰정을 출동시켜 구조활동을 벌였다. 2명의 선원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태극 출신 우모(여·38)씨는 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태승호는 이날 오후 진도군 고군면 용호리항에서 낚지잡이를 위해 출항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해경은 사고 해역에서 3.5km 떨어져 가장 가까운 진도 수평항 출장소에는 순찰정이 없었지만 목포와 완도해경 소속 순찰정과 경비정이 30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배 후미 추진장치 쪽에서 진동을 느낀 뒤 갑자기 물이 차올랐다"는 선장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해경은 또 출항 전 조업해역, 승선인원 등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여제자에 '못된 짓' 전직 교사 법정 구속

여제자에게 '못된 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8일 수차례에 걸쳐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를 만난 날짜, 당시 상황,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업소 당 24만원...처벌 약해 근절 안돼

광주·전남 작년 657건 적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숨방망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해마다 위반 업소는 줄어 들 줄 모르고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단속에 걸려도 벌금 내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는 의식까지 확산하고 있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이 적발된 업소는 ▲2011년(거짓표시 747건·미표시 315건) ▲2012년(“ 374건·“ 360건) ▲2013년(“ 434건·“ 275건) ▲2014년(“ 401건·“ 256건)순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도 홈페이지 등에 위반업소를 공표하고 있지만 기간도 1년에 불과하고 수차례 위반한 업소도 따로 확인할 수 없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광주시의 경우 141개 업소, 전남은 248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공표돼 있는 상태다.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세도축산참고도 깡장수완점'의 경우 미국산 돼지갈비와 폴란드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의 신안군 압해읍 학교길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전남에서만 10개의 주조장이 적

발되기도 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숨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 미표시에 적발된 업소 256곳에 총 과태료는 6136만4000원이다. 업소 1곳당 24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인데다 거짓 표시의 경우 형사고발로 이어지지만 법원 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벌금도 약 200만 원 선이다. 2013년에 적발되고도 지난해 적발된 업소도 15곳에 이른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담양 펜션 화재' 부실 관리 10억대 손배소

유족들, 소유주·당국 상대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황토흙집펜션 화재 사건과 관련, 희생자 유가족들과 부상자가 펜션 소유주 및 관계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는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8일 담양 펜션 화재 사건의 희생자 가족 등 11명을 대리해 펜션 소유주와 담양군, 전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화재에 취약한 담양 펜션 바비큐장의 구조로 인해 당시 피해자들은 탈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

다"면서 "무허가 불법으로 설치된 바비큐장을 운영하고 부실하게 관리 감독한 운영주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화재 피해자 가족들의 경우 15억9500만원 상당, 부상자는 1억9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황토흙집펜션 내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투숙객 고모(여·18)씨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잠자리 거절에 주먹다툼한 부부

○...늦은 밤 잠자리요 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서로에게 폭행을 행사한 30대 부부가 경찰서행.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38)씨가 지난 7일 밤 11시50분경 광산구 신가동 자신의 집 욕실 앞에서 부인 B(35)씨의 잠옷을 찢고 머리를 2회에 걸쳐 폭행, 이에 격분한 B씨도 남편의 뺨을 때리고 손목을 쥐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

○...B씨는 경찰에서 "늦은 시간 너무 피곤해 부부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는데 이날 따라 남편이 너무 강압적으로 나왔다"고 진술, 남편 A씨는 "한동안 관계가 없었던 탓에 잠자리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거부하자 순간 화가 났다"고 토로.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목탑
울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1.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4. 수원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앞(임대가능) 매가 3억5천
2.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5. 수원지구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3.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6. 수원지구 4층중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교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

목포 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100평)

- ①서구 치평동 중심도로 이면코너 (현대자동차위)
- ②주차장 고정완비 E/L 시설됨
- ③임대료 보3천 130만 (상무지구서 제일 저렴함)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피스)

- ① 기본 경매 강의
- ② 바로 실천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매주 수요일 10시
010-6670-9800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오전10시~오후 7시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①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 ②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9억5천
- ③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 ④ 동구 대인동 (토 105㎡, 건 106㎡) 감평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 ⑤ 동구 계림동 (토 445㎡, 건 1558㎡)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5천
- ⑥ 광산구 월곡동 (토 208㎡, 건 250㎡) 감평가 1억4천3백 최저가 1억4천3백
- ⑦ 북구 두암동 (토 198㎡, 건 512㎡) 감평가 3억9천8백 최저가 2억9천8백
- ⑧ 북구 운암동 (토 273㎡, 건 247㎡) 감평가 2억4천4백 최저가 1억7천3백
- ⑨ 북구 중흥동 (토 133㎡, 건 253㎡) 감평가 1억7천6백 최저가 1억1천3백

토지

- ① 서구 쌍촌동 쌍촌역 2분 대로면 최저 41억(1,170평)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